산업보건 주요뉴스

3밀(밀집 · 밀폐 · 밀접) 사업장 환기관리 쉬워진다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환기관리 평가도구 '코-숨' 개발 · 보급

콜센터와 같이 밀집 · 밀폐된 공간이나 많은 고객을 밀접 접촉하는 고객센터와 같은 곳의 환기 상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된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원장 이연수)은 작업공간 환기 실태를 스스로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환기관리 평가도구 코-숨(co-S.U.M.*)'을 개발했다.

* co-Safe air exchange by Untact and Mobile

'코-숨'은 사업장 스스로 환기상태를 관리하는 도구로 작업공간의 크기, 작업자 수, 작업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작업장 환기상태에 따른 위험수준과 환기방법을 제시한다. 위험수준은 '좋음' 단계부터 '지극히 나쁨'의 5단계로 제시되며, '지극히 나쁨' 단계의 경우, '창문을 연속 개방하고 공조기의 외부공기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의 환기방법을 제공한다.

※ 작업장 환경수준 5단계 예시

'코-숨'(co-S.U.M.)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3밀 사업장에서 활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단 누리집 〉 사업소개 〉 직업건강 〉 스마트 환기관리 지원사업(코-숨)**

**** 1시간 환기시, 코로나19 바이러스 100분의 1로 감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4. 21.)**

'코-숨' 프로그램의 보급은 공단의 「스마트 환기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밀집 · 밀폐 · 밀접 작업환경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개소에는 안내문을 보내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업장 자체 평가 결과 환기실태가 취약한 사업장에서 정밀평가를 요청할 경우 공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6일(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법학회 주관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190개 협약 중 핵심 국제 규범으로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금지 등 8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활동을 허용하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디딤돌로 우리 노사 관계가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